

# 한국어의 ‘보내-’와 영어의 send의 차이: 어휘 해체분석에 기반하여

김문형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likerainsun@snu.ac.kr](mailto:likerainsun@snu.ac.kr)

## Th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Verb Ponay-‘send’ and the English Verb send: based on lexical decomposition

Mun Hyong Kim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한국어에서는 ‘보내-’가 여격 구문만을 허용하는 반면에, 영어의 send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 모두를 허용한다. 이런 비 대칭성은 어휘 해체 이론에 기반하여 볼 때, 영어에서는 send가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CAUSE와 전치사 P<sub>HAVE</sub>로 분해되는 동사와 여격 구문에서 CAUSE와 P<sub>LOC</sub>로 분해되는 동사가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보내-’가 CAUSE와 P<sub>LOC</sub>로만 분해되는 동사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어의 ‘보내-’가 ‘주-’와 결합할 때는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주-’는 P<sub>HAVE</sub>를 갖는 동사와 P<sub>LOC</sub>를 갖는 동사로 나누어지는데, P<sub>HAVE</sub>로 나누어지는 ‘주-’가 ‘보내-’의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본다. ‘주-’는 ‘보내-’이외에도 사역 동사들과 수여 동사들의 이중 목적어 구문의 형성을 돕는다.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send가 동사로 쓰인 이중 목적어 구문과 한국어의 ‘보내-’가 동사로 사용된 이중 목적어 구문을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비 대칭성 문제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의 한국어와 영어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비 대칭성을 살펴보자.

- (1) a. 이중목적어 구문: I sent a book to Mary.
- b. 여격 구문: I sent Mary a book.
- c. 이중목적어 구문: \*나는 영희를 책을 보냈다.
- d. 여격 구문: 나는 영희에게 책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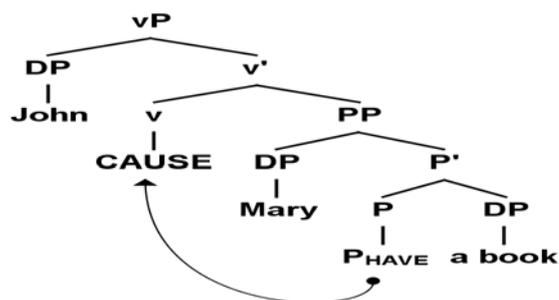
먼저 영어의 경우는 send동사가 이중 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 모두를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보내-’는 여격 구문만을 허용하고, 이중 목적어 구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비 대칭성을 어휘 해체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이 비 대칭성을 설명하기 전에, 한국어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 무엇인지, 그리고 이중 목적어 구문의 형태가 (1c)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기존 연구 개괄

### 2.1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구문의 어휘해체론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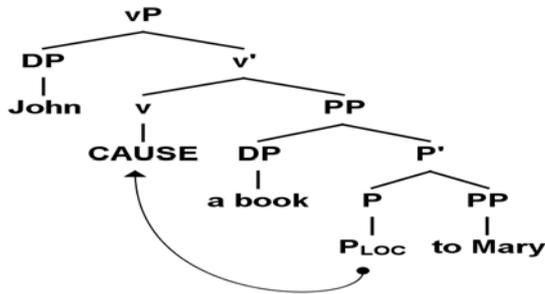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구문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 하나의 어휘를 그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에 기반하여 분해하고, 그 분해된 요소를 바탕으로 두 구문의 구조를 밝히는 어휘해체 분석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Harley(2002)는 John gave Mary a book의 의미가 ‘John CAUSED MARY to HAVE a BOOK’로 해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 기대어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give는 표면 논항 선택 술어인 CAUSE 술어( $V_{CAUSE}$ )와 전치사 성분 인  $P_{HAVE}$ 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논항구조와 관련해서 Harley가 제안한 통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녀가 제안한 이 구조는 Pesetsky(1995)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래의 구조에서  $P_{HAVE}$ 는 이동을 통하여 CAUSE와 결합하고, 표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John gave Mary a book.



또한, 여격 구문 ‘John gave a book to Mary’에서는  $P_{HAVE}$ 가 아니라  $P_{LOCATION}$ 가  $V_{CAUSE}$ 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3) John gave a book to Mary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P<sub>HAVE</sub>와 P<sub>LOCATION</sub>에 따른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P<sub>HAVE</sub>와 같은 성분의 존재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 2.2 P<sub>HAVE</sub>와 P<sub>LOCATION</sub>의 증거

### 2.2.1 언어 내적 증거

먼저 Harley(2002)가 P<sub>HAVE</sub>의 증거로 이중목적어 구문의 goal 논항은 소유자 의미역을 꼭 가져야 하고, 이는 goal 논항이 유생물(animate) 개체여야만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많이 밝혀진 사실이다 (Bresnan 1982, Green 1974, Oehrle 1976, Gropen, Pinker et al. 1989, Mazurkewich and White 1984). 아래의 예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 (3) a. The editor sent the article to Sue.  
 b. The editor sent the article to Philadelphia.  
 c. The editor sent Sue the article.  
 d. ?? The editor sent Philadelphia the article.

여기서 (3d)의 Philadelphia를 어느 정도 유생물의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로 이해하면 비문이 된다 (Jung and Miyagawa 2004). 소유자 의미역과 장소의 의미의 차이가 잘 나타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 (4) a. John taught the students French.    b. John taught French to the students.

이 두 문장에서 (4a)가 학생들이 실제로 불어를 더 배웠다는 의미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Oehrle 1976, Kayne 1975, Larson 1988). 이러한 의미차이는 (4a)의 the students는 소유자의 의미역을 갖고, (4b)의 students는 장소의 의미역을 갖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Jung and Miyagawa 2004).

P<sub>HAVE</sub>의 증거는 관용구의 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다.

- (5) a. Mary gave John a kick.      c. Bill threw Mary a glance  
    b. \*Mary gave a kick to John.    d. \*Bill threw a glance to Mary.

(5a)와 같은 관용 표현이 (5b)의 여격 구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5c)가 (5d)의 여격 구문이 될 수 없는 것은 P<sub>HAVE</sub>의 의미가 이 관용 표현들 (5a)와 (5c)에서는 꼭 포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Jung and Miyagawa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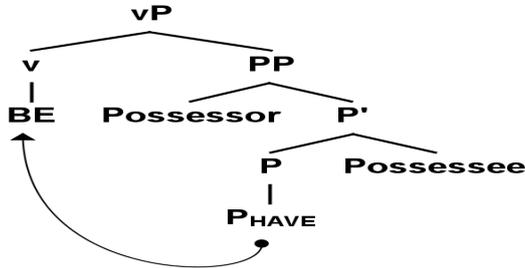
### 2.2.2 언어 교차적 증거

P<sub>HAVE</sub>가 전치사 성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온 주장이다 (Benveniste 1966, Freeze 1922, Gueron 1995, Kayne 1993). 이들은 모든 언어가 소유의 의미를 갖는 HAVE동사가 BE동사와 전치사 성분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Freeze(1922)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힌디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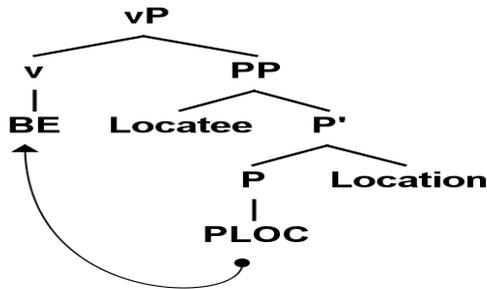
- (6) a. larkee-kee            paas    kattaa    hai.      (possessive)  
    boy-OBL-GEN    near    dog      BE.3SG.MSC.Pres  
    Location (Possessor)      Theme V  
    ‘The boy has a dog.’  
    b. ma\_i\_ hindustaan-me\_e\_thaa            (Locative)  
        I      India-in      BE.SG.MSC.Pst  
    Theme Location      V  
    ‘I was in India.’  
    c. kamree-me\_e\_aadmii hai            (Existential)  
        room-in man    BE.S3G.MSC.Pres  
    Location Theme V  
    ‘In the room is a man’

(6a)의 소유의 의미는 be동사와 전치사 성분으로 표현된다. Freeze는 이 세가지 문장을 동일한 구조로 표현하지만, Harley(2002)는 이 세가지 문장 (6a)와 (6b)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저구조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영어와 힌디어의 차이는 P<sub>HAVE</sub>가 BE동사로 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Harley가 제안한 영어의 소유의미의 구문과 장소의미의 구문의 구조이다.

(7) a. 소유 의미(영어): Mary has a book.



b. 장소 의미(영어): Mary is in the garden.



(7a)의 통사구조를 보면, 이중목적어 구문의 통사구조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동사가  $V_{CAUSE}$ 인지 BE동사인지를 여부이다. 따라서  $P_{HAVE}$ 가 UG의 일부라는 것이 이러한 제안들(Freeze 1992, Gueron 1995, Kayne 1993)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고,  $P_{HAVE}$ 가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더 설득력을 얻는다 (Jung and Miyagawa 2002)

## 2.3 한국어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

### 2.3.1 $P_{HAVE}$ 의 증거

먼저 한국어에서도  $P_{HAVE}$ 가 존재하고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구문의 특징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Jung and Miyagawa(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한다.

(8) a. 메리가 존에게/을 책을 주었다.

‘Mary gave John a book.’

- b. Mary d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the book is LOCATED on John.
- c. Mary d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John gets(=HAVE) the book.

그들에 따르면, (8a)에서 ‘주-’는 goal 성분에 여격과 목적격을 둘 다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구조는 의미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8a)에 여격 구문과 이중 목적어 구문은 각각 (8b)와 (8c)로 바꿔 쓰일 수 있는데, 이중 목적어 구문이 바뀌어 쓰인 경우에 John이 실제로 책을 가졌다는 의미가 더 강해지는 소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영어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goal이 소유의 의미를 갖는 것을 보면 한국어에서 목적격이 goal과 결합된 형태를 이중 목적어 구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어에서 goal 성분이 소유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이중 목적어 의미적 특징이 한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 (9) a. 메리가 존에게/\*을 마음을 주었다.
- b. 메리가 존에게/\*을 시선을 주었다.
- c. 메리가 학교에/\*를 돈을 주었다.

(9a)와 (9b)의 문장에서 goal 성분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것이 비문인 이유는 마음을 존이 받아들였는지, 시선을 John이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고, 각각 ‘Mary CAUSED her heart/her glance to be located on John’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c)에서 학교에 목적격 조사가 붙을 때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어느 정도 유생물의 성격을 갖는 기관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의 의미로 해석할 경우 비문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goal에 성분으로 유생물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어의 경우인 (3b)와 동일한 현상이다.

Goal 성분의 소유의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것은 (10b)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더 영어를 배웠다는 의미가 강해지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Jung and Miyagawa 2002).

- (10) a. 메리가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 b. 메리가 학생을 영어를 가르쳤다.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이중 목적어 구문이 goal성분에 목적격이 오는 형태라는 것에 대한 P<sub>HAVE</sub>의 측면의 증거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표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Jung and Miyagawa(2002)가 제시한 CAUSE의 증거를 살펴보자.

### 2.3.2 CAUSE의 증거

P<sub>HAVE</sub>의 증거들뿐만 아니라, Jung and Miyagawa(2002)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CAUSE

의 증거도 찾을 수 있다. 그 증거로 한국어에서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역동사(causative verb)를 들 수 있다.

- (11) a. 존이 메리에게/를 피자를 먹였다.  
b. 메리가 아이에게/를 옷을 입혔다.  
c. 엠마가 아이에게/를 젖을 물렸다.  
d. 엠마가 아이에게/를 우유를 먹였다.

(12) Jung and Miyagawa(2002)의 일반화: 한국어에서 이중 목적어, 여격구문을 둘 다 보이는 동사는 타동사 중 사역동사들과 ‘주-’와 같은 동사 부류이다.

(11)에서 사역동사가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에 모두 사용되는 것과 (12)의 일반화로부터 한국어의 ‘주-’와 사역 동사에  $V_{CAUSE}$ 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에서는  $V_{CAUSE}$ 가 표면에서 발음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는  $V_{CAUSE}$ 가 ‘먹-이’, ‘입-히’, ‘신-기’처럼 사역 동사에서 접사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AUSE의 직접적인 증거를 한국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전의 연구를 개괄하면서, 어휘를 그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결합으로 해체할 수 있고, 영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과 여격 구문의 의미 차이에 착안하여 두 구조가 다른 기저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다른 기저 구조는 어휘 해체 성분인  $V_{CAUSE}$ ,  $P_{HAVE}$ 와  $P_{LOCATION}$ 로부터 나타나는 어휘적인 의미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목적어 여격구문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 보도록 한다.

### 3.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비대칭성

한국어에서는 영어와 다르게 여격 구문은 가능하지만 이중목적어 구문은 가능하지 않은 동사들이 존재한다. 이점은 Jung & Miyagawa(2002)에서 미 해결점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3) a. 메리가 존에게/\*을 책을 보냈다.  
b. Mary sent a book to John.  
c. Mary sent John a book.

위의 문장에서 한국어의 ‘보내-’의 경우는 여격구문만 가능한 반면, 영어의 send는 두 구문이 다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보내-’만이 아니라 다른 ‘주-’를 제외한

다른 수여 동사들도 이러한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이 지적되었다 (Jung & Miyagawa 2002).

- (14) a. 메리가 친구에게/\*를 편지를 썼다.  
 b. 메리가 존에게/\*를 책을 팔았다.  
 c. 메리가 존에게/\*를 공을 던졌다.

먼저 국어의 ‘보내-’와 영어 send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동사의 통사적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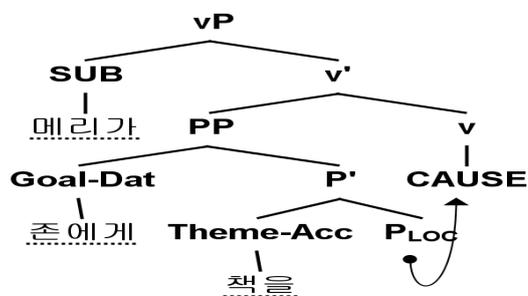
### 3.1 비대칭성의 통사적 분석

한국어의 ‘주-’를  $V_{CAUSE}$ 와  $P_{HAVE}$ 로 분해하여 설명한 Jung & Miyagawa(2002)에 비추어 보면, ‘보내-’도 그 분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보내-’의 이중목적어 구조가 비문이 되기 때문에  $P_{HAVE}$ 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5) a. 메리가 존에게/\*을 편지를 보냈다.  
 b. 메리가 존을 책을 주었다.

우리는 (15b)와 같은 문장의 의미가 Mary CAUSED John to HAVE a book.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는 존이 그 책을 갖는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15a)의 여격구문에서는 존이 편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여부가 불 분명하다. 이는 (15a)의 ‘보내-’가 여격구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영어의 여격 구문과 이중목적어 구문의 의미차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렇다면 ‘보내-’가 이중목적어 구문을 못 만드는 이유를 영어의 send가  $P_{HAVE}$ 를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갖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어의 ‘보내-’는  $V_{CAUSE}$ 와  $P_{LOC}$ 로만 분해된다고 볼 수 있다.

- (16) 메리가 존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문제점은 의 여격 구문의 ‘주-’를  $V_{CAUSE}$ 와  $P_{LOC}$ 로 분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보내-’를  $V_{CAUSE}$ 와  $P_{LOC}$ 로 분해 하면 두 어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V_{CAUSE}$ 또는  $P_{LOC}$ 중 ‘주-’와는 다른 성분이 ‘보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와 ‘보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는  $V_{CAUSE}$ 와  $P_{LOC}$ 중에 어떤 것인지 보자. (16)의 통사구조를 보면, PP의 지정사 위치에 ‘존’이 있고, ‘책’이  $P_{LOC}$ 과 자매항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최대투사 범주는 “존에 책이 존재한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V_{CAUSE}$ 가 하는 일은 책이 존에게 위치하도록 책을 보내는 행위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주-’에 경우는 동일한 PP구조를 갖고, 그 의미는 “존에 책이 존재한다”지만,  $V_{CAUSE}$ 가 하는 역할이 책이 존에게 주어지도록 책에 행위를 가하는 차이가 있다. 즉, ‘주-’와 ‘보내-’의 차이는  $V_{CAUSE}$ 가 직접목적어에게 가하는 행위의 차이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 보이는 ‘보내-’의 여격 구문과 이중 목적어 구문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면, 어휘의 언어에 따른 차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 3.2 ‘주-’의 결합이 제시하는 ‘보내-’ 분석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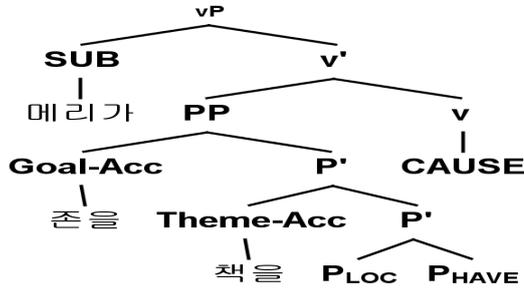
먼저 주목할만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여격구문만 허용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은 허용하지 않는 동사들은 ‘주-’와 함께 복합 동사를 구성할 때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17) a. 메리가 존에게/\*을 책을 보냈다.

b. 메리가 존에게/을 책을 보내주었다.

(17a)에서 ‘보내-’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보내-주-’는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왜 ‘보내-’에 ‘주-’가 붙었을 때는 이중 목적어 구문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려면, ‘존’이 책을 받는 행위에 있어서 다른 입장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17a)가 여격 구문일 때 ‘존’이 책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17b)의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존’이 메리가 보내준 책을 받았다는 의미가 더 강해진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주-’가 ‘보내-’에 결합하면서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주-’가 들어가는 이중 목적어 구문을  $V_{CAUSE}$ 와  $P_{HAVE}$ 로 분해할 수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보내-’가  $V_{CAUSE}$ 와  $P_{LOC}$ 만 존재하지만,  $P_{HAVE}$ 가 같이 결합하여  $V_{CAUSE}$ 와 ‘주-’를 형성하면서, goal 성분으로 유생물의 주어를 요구하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내-’ 자체에는  $P_{LOC}$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다음은 (17b)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통사구조이다.

(18) 메리가 존을 책을 보내주었다.



(17)과 같은 현상은 사역 접사가 붙은 동사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역 동사가 여격 구문만 허용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가 결합하면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9) a. 메리는 존에게/\*을 그 소식을 알-리-었다.  
 b. 메리는 존에게/을 그 소식을 알-리-어-주-었다.

(17)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역동사들은 사역 접사를 제외한 능동형의 동사가 행위자인 (agent)의 의미역을 갖는 논항을 주어로 취하지 않고,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을 갖는 논항을 취하는 동사들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20) ‘알-리-’, ‘맛 보-이-’, ‘들-리-’

이러한 동사들은 (17)과 마찬가지로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지만, ‘-주’가 결합하면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한다.

- (21) a. 메리는 존에게/\*을 그 음식을 맛 보였다.  
 b. 메리는 존에게/을 그 음식을 맛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주’가 결합하면서 이중 목적어 구문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여 동사들 중에도 존재한다.

- (22) a. 메리가 존을 편지를 \*썼다/써주었다.  
 b. 메리가 존을 책을 \*팔았다/\*팔아주었다.  
 c. 메리가 존을 공을 \*던졌다/던져주었다.

(22a)와 (22c)의 수여 동사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허용하지 않지만, ‘주-’가 결합하면서,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한다. 그리고 존이 편지를 받았고, 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2c)는 ‘주-’가 결합해도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팔아 주었다’가 보통 “메리는 존의 물건을 팔아주었다”의 문장에서처럼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문장이 왜 비문인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다른 의미로 ‘팔아 주었다’가 사용되기 때문에 존이 책을 받는 의미의 해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그러면 ‘-주’가 다른 동사랑 결합하면서 의미적으로 어떤 것을 문장의 의미에 더하는지 보자. 앞에서 ‘보내-’의  $V_{CAUSE}$ 가 ‘주-’의  $V_{CAUSE}$ 와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 했었다. 그렇다면, (18)의 문장 구조에서  $V_{CAUSE}$ 도 하나의  $V_{CAUSE}$ 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V_{CAUSE}$ 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V_{CAUSE}$ (‘주-’)와  $P_{HAVE}$  때문에 존이 책을 가졌다는 의미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추가는 사역 동사들 중에 타동사에 사역 접사가 붙은 동사들에서도 나타난다.

- (23) a. 메리는 아이를 밥을 먹였다.  
 b. 메리는 아이를 밥을 먹여주었다.  
 c. 메리는 아이를 옷을 입혔다.  
 d. 메리는 아이를 옷을 입혀주었다.

(23b)에서는 “아이가 밥을 메리로부터 직접 받아 먹었다”는 의미가 더 강해지며, (13c)보다 (23d)에서 “아이가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더 강해진다.

지금까지 ‘주-’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면서, 이중목적어 구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주-’가 결합하면서 이중 목적어를 허용하는 현상은, ‘보내-’가 한국어에서는  $P_{HAVE}$ 를 갖지 않고,  $P_{LOC}$ 만 갖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통사 구조에서 격 할당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4. ‘보내-’의 격 점검

이 연구의 주된 논의는 ‘보내-’가 영어의 sen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격 점검에 대해서는 Jung & Miyagawa(2002)에서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보내-’는 ‘주다’의 여격 구문과  $V_{CAUSE}$ 의 의미적 속성을 제외하면, 동일한 구조는 갖는다. 따라서 격 할당도 ‘주다’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여격 구문의 격할당에 대해서 제시된 방법은  $V_{CAUSE}$ 가 theme 성분에만 목적격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goal 성분은 후치사 ‘-에게’로부터 격을 할당 받는다. 이것은 수동태 구문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다음은 Jung & Miyagawa(2002)에서 제시된 비 대칭적 수동 구문이다.

- (24) a. 옷이 존에게/\*를 입혀졌다.  
 b. 옷이 존에게/\*를 주어졌다.

위의 문장에서 goal 성분에 후치사 여격 표지가 붙어있으면, 기저 구조에서 theme성분이 수동태가 되면서 goal 성분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V_{\text{CAUSE}}$ 가 수동태가 되면서 theme 성분이 목적격을 잃어 버리고, T가 격을 체크할 때, 후치사와 있는 DP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theme 성분만 T의 지정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에,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는 두 목적어가 모두  $V_{\text{CAUSE}}$ 에 의해 격을 할당 받는데, 이는 수동태 문장에서 theme성분이 goal을 넘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 (25) a. 존이 옷이 입혀졌다.  
 b. 존이 책이 주어졌다.

위에 문장에서 theme이 goal을 선행하면,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동태가 되면서 goal과 theme성분이 목적격을 잃어 버리고, T로부터 주격을 할당 받으려 이동을 할 때, 가까운 것이 먼저 선택되기 때문이다. goal과 theme에 둘 다 주격이 붙은 이유는 같은 T로부터 격을 할당 받기 때문이다.

## 5. 결론

한국어의 ‘보내-’와 영어의 send’의 여격 구문과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비 대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휘 해체 이론에 기반하여 한국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은 목적격 표지 ‘-를’이 goal성분과 theme성분에 결합한 형태의 문장이라고 바라 보았다. 이러한 근거는 영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보이는 의미적 특성이 한국어에서 ‘-를’ 표지가 goal과 theme성분에 결합된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중 목적어 구문에 goal에는 유생물이 와야만 한다.

먼저, send의 분해에 대해서는 영어 give가  $P_{\text{HAVE}}$ 와  $\text{LOC}$ 로 분해되기 때문에, send도 비슷한 방식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어 send에는  $P_{\text{LOC}}$ 로  $P_{\text{HAVE}}$ 로 분해 되는 동사가 있는 반면, ‘보내-’는  $P_{\text{LOC}}$ 로만 분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분석의 증거로  $P_{\text{HAVE}}$ 를 갖는 ‘주-’가 ‘보내-’에 결합할 때, 이중 목적어 구문을 허용하여 goal성분으로 유생물이 와야만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주-’의 결합이 ‘보내-’만이 아니라 이중목적어 구문이 불가능 했던 사역 동사들과 수여 동사들을 이중 목적어 구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볼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Gallimard, Paris
- Bresnan, Joan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Freeze, Ray (1992a).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95.
- Guéron, Jacqueline (1995) "On HAVE and BE," Proceedings of the NELS, University of PA,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Green, G. (1974). *Semantics and syntactic irregularit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arley, Heidi (2002)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 29-68.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ung, Yeun-Jin, Shigeru Miyagawa (2004) "Decomposing Ditransitive Verbs," In Proceedings of SICGG, 101-120.
- Kayne, R. (1975) *French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ayne, R. S. 1993. "Toward a Modular Theory of Auxiliary Selection," *Studia Linguistica*, 47:3-31 (reprinted in Kayne (2000)).
- Larson, Richard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335-391.
- Mazurkewich & White, 1984. "The acquisition of the dative alternation: Unlearning overgeneralizations," *Cognition* 16 (1984), pp. 261-283.
- Oehrle, Richard (1976) "The Grammatical Status of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PhD dissertation, MIT.
- Pesetsky, David (1995) *Zero Syntax: Experiencers and Cascades*. MIT Press.
- Pinker, Steven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 Richards, Norvin (2001) "An idiomatic Argument for Lexical Decomposition," *Linguistic Inquiry* 32, 183-192. MIT Press.